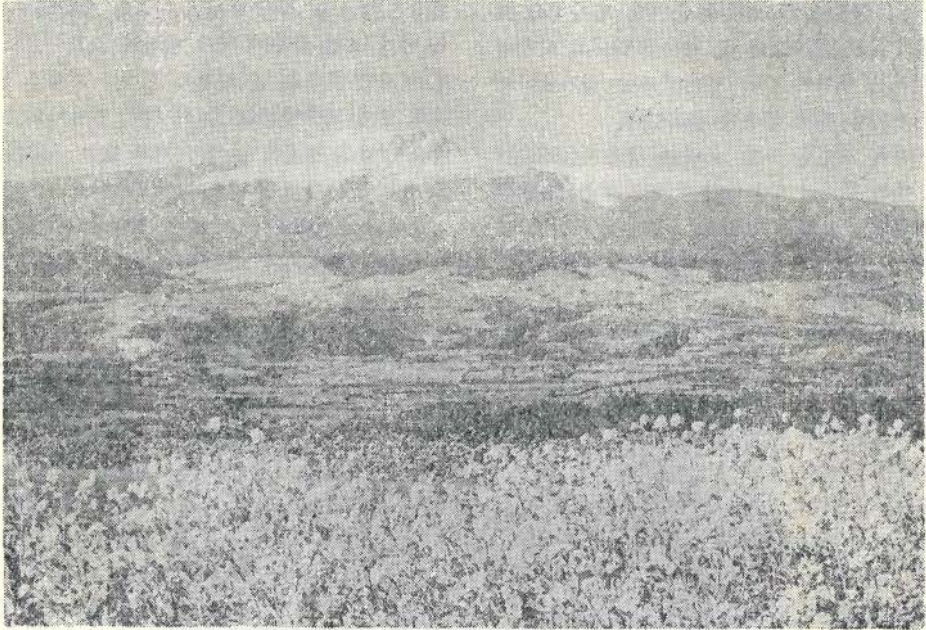


1970. 10. 16

한국자연보존연구회 발행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

崔 基 哲

공기총으로 새를 잡는 사람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 잘 맞고 잘 잡히니 해 불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심심풀이나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국립으로 급하고 있는 보호조까지도 엽총이나 칼빈총으로 쏘아서 잡는 예가 적지 않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토에서 영영 자취를 감춘 새까지 있다.

독약을 풀고, 폭발물을 터트리고, 강한 전기 자극을 주어서 물고기를 잡는 예는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낚시질을 하는데 비하면 무척 능률적이어서 만족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속리산의 망개나무는 그것이 관목인지 교목(키 큰 나무)인지가 학계에 밝혀지지 못했고, 꽃이나 열매가 기재도 되지 못했을 때에 꽃과 열매를 보여준 으깬 교목이었기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오히려 3년도 못가서 꺾질을 벗은 고사목이 되고 말았다.

학술적으로 산업적으로 귀중한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식물이 이렇게 해서 하나 들쭉 없어져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국민들이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작은 새 한마리를 공기총으로 잡았다면 그가 잡아 먹어야 할 수천마리의 곤충이 살아 남을 것이 아닌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새가 참새구이집으로 팔려가면 우리의 자연계에서는 그 수의 몇 천 배나 몇 만배나 되는 곤충들이 춤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논이나 밭, 그리고 숲이 썩대밭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자연의 평행을 깨뜨렸을 때에 인간이 받는 피해란 10중 8,9는 인간의 무지각한 행동의 부산물인 것이다.

외국 여행을 했을 때 공원에서 어린 소년 소녀가 비둘기나 꽃사슴에 과자를 주는 광경을 흔히 본다.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동식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은 문화의 척도가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자연애호는 법으로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사는 온 국민의 온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사대 교수)

<자연소개>

한 라 산

李 德 鳳

한라산은 제주도의 중앙에 높이 솟아있는 산으로서 남한에서 제일 높은 해발 1,950m의 화산이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산이라기 보다 제주도가 곧 한라산 하나로 이루어진 섬이다. 한라산 주위의 넓은 평야지대는 산기슭이며 한라산의 치마자락을 펼쳐 놓은데 불과하다.

옛날에는 나라의 죄인을 귀양 보내는 유행지(流刑地)였으며, 고려 때는 한동안 몽고족의 목축장 또는 일본 정벌용의 선박제조장이던 때도 있었다. 근세에 와서는 여자와 돌과 바람이 많은 삼다(三多) 섬으로 알려져 있고, 교통편이 편리하여짐에 따라 학술조사는 물론, 관광수렵 및 신흥산업 등 여러 방면의 인사들이 빈번히 왕래하고 있어 새삼스럽게 한라산을 소개한다는 것이 쑥스럽게 생각된다. 그러나 흔히 제주도의 특이한 경관을 감상하는데 그치고 지질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보통이 아닌가 한다.

한라산은 산 전체가 거의 현무암으로 되어 있으며, 제3기 말에서 홍적기(洪積紀)에 걸쳐 성립되어 비교적 나이가 어린 화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태초(太初)에는 이섬에 사람이 없었는데 3신인(神人)이 땅속에서 솟아 올라 이섬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제주도 남쪽에 소위 삼성혈(三姓穴)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으며 여기서 나온 세사람이 고·부·량(高·夫·良) 3씨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이 신화를 지질학적으로 본다면 3신인은 섬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섬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아마도 한라산의 화산작용이 진정되어 번창하다가 불행하게도 큰 분화가 일어나 온섬이 잿더미가 되었을때 천행으로 동굴 같은 곳에 피난하였다가 살아 남은 사람이 곧 3신인이 아니겠는가. 이 대분화의 시기는 대략 1세기 내지 2세기 쯤 될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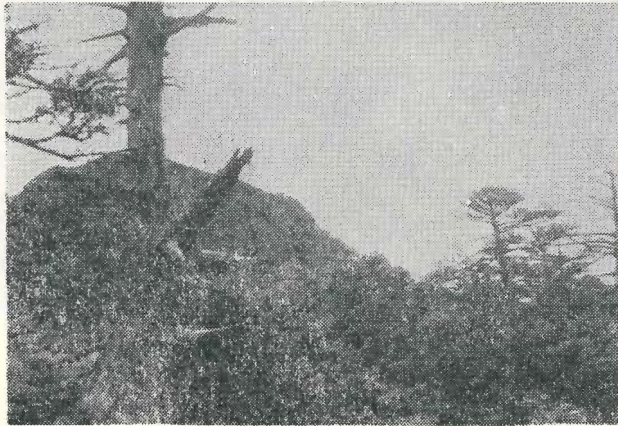
다시 고려사에는 목종(穆宗) 5년과 10년에 소규묘의 분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3신인이 나타난 뒤에도 적어도 2회의 분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60여년의, 지난 현재까지 분출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

아 이제는 사화산(死火山)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제주도에는 마치 전북 점철을 덮어놓은 것처럼 생겼고 그 중앙에 솟은 한라산 산정에는 10만평에 달하는 못이 있는데 이것이 옛날의 분화구로서 백록담이라고 부른다.

한라산은 산세가 대개 사방으로 느린 경사지를 이루면서 바다에 접하였고, 인가는 산기슭의 평탄한 곳에 있다. 산정에서 바다에 이르는 직선 거리는 16~20km에 불과하고 급경사는 적으나 상류하천(常流河川)은 거의 없고 빗물은 땅으로 스며 해안에 이르러 솟아난다. 그래서 내리는 비가 오면 급류가 되어 세차게 흐르다가도 비만 그치면 몇시간 뒤에는 곧 건천이 된다. 이것은 온산이 화산재로 덮여 보수력(保水力)이 약한 까닭이다. 그래서 산기슭의 넓은 평원에 촌락이 거의 없고 유흥지가 많은 것도 음로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라산 주위에는 크고 작은 300여개의 기생화산이 있는데 모두 꼭대기에 분화구가 있어서 일대 기관(奇觀)이며 세계에서 그 유래가 드문것이다.

한라산의 식물분포상을 보면, 이 산은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자리잡고 있어 난대, 온대, 한대의 식물이 골고루 분포한다. 또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각종 식물이 균세(均勢)를 이루고 있어 식물의 중수가 우리나라 전체 식물 중수의 약 40%인 1,500여종에 달한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식물의 수직분포



를 관찰하기에는 가장 좋은 식물의 보고라 하겠다.

산기슭에는 소나무 말이 즐겨 먹는 벼과 식물 100여종, 콩과 식물 50여종과 그밖에 사료가 될만한 풀이 길길이 자라 초원을 이루고 있어 3신인시대 부터 목축에 힘썼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고려때는 원(元)나라에서 관리를 보내와 많은 말을 기른때도 있고, 현재도 말과 소를 방목하여 자연증식이 되고있다. 이곳에는 호랑이, 늑대 같은 맹수가 없어 소나무를 놓아 길러도 아무 피해가 없으나 작은 진드기의 기생으로 고생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남부에 생육하는 상록수 70종 중 68종이 제주도에 있는데, 지금은 산 중턱 이하의 골짜기에만 상록수림이 남아 있지만 옛날에는 산기슭 일대가 모두 상록수림이었음을 짐작한다. 산정 일대에는 백리향, 시러미, 들죽, 눈향나무등 작은 고산식물이 있는데 등산객이 저마다 파가서 이대로 놔두면 멸종될까 걱정된다. 또 산의 곳곳에는 향기 높은 표고버섯을 재배 외국에 수출하고 있으나 활목으로 쓰고자 도토리나무와 서나무 종류를 마구 베어 자연을 파괴함은 반성할 사태가 아닐가 한다.

이외에 토끼섬의 문주란, 구좌면의 비자림, 삼도의 상록수림과 천연기념물인 파초일엽등은 엄중히 보호되어야 할 식물들이다.

끝으로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치는 서귀포 일대에 산재하고 있다. 이지역은 북에 한라영봉과 남으로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등의 절경이 있고, 이곳에서 가꾸는 꿀의 향기는 그윽하여 실로 천경이 아닌가 느껴진다. (중앙대·이공대 교수)

<기행문>

계룡산 기행

金 憲 奎

계룡산의 최고봉인 삼봉(827m)을 비롯하여 삼불봉, 쌀개봉, 연천봉, 연화봉, 수정봉의 7봉도 4박 5일이면 다볼 수 있는 알맞는 코-스이며 능선이 서로 연결되어 마치 용이 꿈틀 거리는 모습에 닭벼슬을 쓰고있는 형상같아서 계룡산(鷄龍山)이라 명명된 것으로 전한다.

계룡산의 입구인 동학사는 대전역에서 26 Km로서 택시로 40분가량 걸린다.

동학사 계곡을 따라 산길을 약 1.5기로 올라가

면 깎아세운듯한 암벽에서 폭포수가 떨어져 선경을 이룬다. 옛날에 선녀가 이곳에 내려와 물래 목욕했다는 전설이 있어 은선폭포(隱仙瀑布)라는 이름이 있다.

폭포 바로 옆에는 절벽이어서 바위타기 연습장소로 알맞은 곳이며 고등학교들이 많이와서 연습한다.

동학사에서 감사로 넘어가는 6Km의 산길은 알맞는 하이킹코-스라 할 수 있다.

여름에 녹음을 헤치며 계곡을 따라 거닐때 느끼는 상쾌한 기분은 일상생활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이다.

산정가까이 계명정사(鷄鳴精舍)라는 암자가 있고 그 옆에 남매탑이 자리잡고 있다. 암자마루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사면을 보는 전망도 좋다.

삼불봉을 바라보며 등을 넘어 내려가면 신흥암이라는 암자가있고 암자뒤에는 천진보탑이 높이 솟아있다.

신흥암에서 조금만 더내려가면 용문폭포가 길가에있다. 감사에서 500m밖에

안되는 곳에있다. 감사부근에는 여관도 많고 공주로 내왕하는 버스편도 있다. 계룡산의 정기를 단격하려면 감사에서 1박한후 신흥사로 넘어가면서 연천봉을 답사하고 신흥사에서 1박한 후에 최고봉인 천황봉의 정상을 넘어 동학사로 귀환하는 것이 가장좋은 코-스일 것이다. 계곡마다 활엽수 밀림지대를 이루어 좋은 경관을 나타낸다.

(이화여대 문리대교수)

오들또기

홍경계 한 국 민요
김 회조 편곡

1 오 - 들 - 또 - - 기 지기 춘 향 나 - 온 - 다
2 칭 - 사 - 초 - 롱 에 불 - 밤 - 혀 - 놓 - 고

달 - 도 밝 - - - 고 내 가 어 디로 갈 거 나
춘 향 의 방 - 으 - 로 내 가 장 가 를 갈 거 나

동그래 당 실 동그래 당 실 여 - 도 당 실 연 자 버 리 고

달 - 도 밝 - - - - 고 내 가 머 리로 갈 거 나

◎오들또기는 제주도 민요로, 육지의 민요에 비해서 남방풍의 영향이 짙다.

한국의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198호>

따오기(朱鷄); Nipponica nippon(Temminck)

“따욱따욱 따오기 논에서 울고……”한국인의 동심속에 살아온 따오기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동북지방, 소련 연해주, 일본의 일부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2차대전의 전화로 거의 멸종 단계에 있으며, 일본에서는 20~30개체에서 현재는 약 10개체정도가 생존할 뿐이다.

잡목숲이나 포푸라나무 가지에 영소하여 3~4개의 알을 낳으며 한국에는 2차대전 전에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겨울 새로서 전국 각처에 많은 무리가 이동하

여 왔었으나 최근조사에 의하면 1966년 2월 판문점부근의 초습지에서 단 2개체가 관찰되었을 뿐 이외의 기록은 아직없다. 이와같이 2차 대전이전에는 흔히 볼수 있었던 따오기가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추어 일본의 번식지 부근에 한하여 생존하며 간혹 한국에도 자취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정부는 천연기념물로서 지정하고 보호에 힘쓰고 있으나 불지각한 남획자들에 의한 포획은 공식적인 집계로는 알 수 없으나 상당수가 희생되리라 추측된다.

국제조류보호협회(IUCB)에서도 보호조로서 등록하여 법적제적인 보호대책에 힘쓰고 있다.

우리들의 후손에 따오기의 동심을 물려주기 위해 국민 모두가 보호와 번식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자 료>

제주도(濟州島) 식물의 특이성

鄭 英 昊

제주도는 한라산을 위시하여 대소 200여개의 사화산과 부속 도서로서 이루어진 섬이다. 그 중 한라산은 제주도의 중앙에 솟아있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한(寒), 온(溫), 난(暖) 삼태의 식물이 울창하게 대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식물연구에 가장 많은 자료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한라산 자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천연기념물 제 182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19호인 토끼섬의 "무주란", 제 109호인 서귀포의 "해송", 제41호인 증문면의 "녹나무" 제18호인 산도(薪島)의 "파초일엽" 등 도합 11가지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다.

제주도에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172과 655속, 1,262종 220변종(6 품종 포함)으로 국내의 어느 지역보다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는 난대, 온대, 한대식물의 세가지 분포가 뚜렷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제주도 식물분포의 특이성으로 난대식물은 일본, 중국의 중, 서부와 공통 분자가 많고 한대식물은 한반도와의 공통분자가 많다. 이것은 제주도의 지사(地史)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주도는 특산식물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 바늘엉겅퀴, 쯤민들레, 한라송이풀, 두메대극, 제주황기,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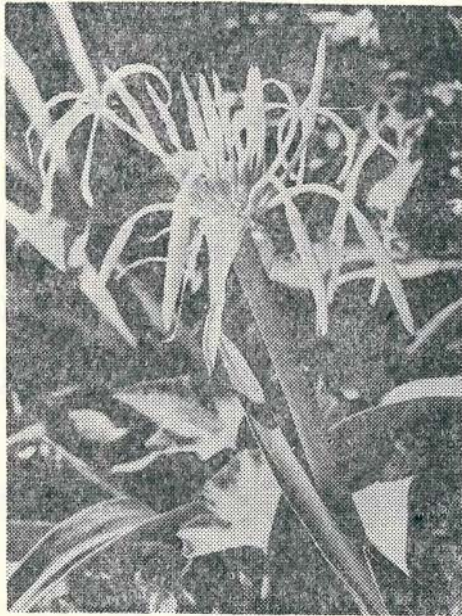
기솔나무, 제주달구지풀, 솔비나무, 제주당귀, 한라개승마, 한라평의다리, 왕벚나무, 제주조릿대 등 30종이 훨씬 넘고 있다. 또한 분포상 특이한 식물로서는 해류에 의해 전파되었으리라고 믿어지는 "문주란", "해너콩"이 특정 해안에 자라고 있으며, 열대성 양치식물인 "파초일엽"이 섬섬에 자라고 있다. 분포상 북한(北限)이 되는 "솔잎란"은 천지연폭포 절벽에 자라며, 관상식물로 가치가 높은 "한란"은 토명리 부근의 상록수림 아래에 자라고 있으나 매우 희귀하다.

제주도의 수목 287종 중 약 31%인 89종이 상록수이며 이 중 난대성 상록활엽수로는 한국산 70종 중 68종이 해안이나 계곡등에서 그 푸르름을 년중 자랑하고 있으므로 과연 상록수의 보고라 아니 할 수 없다. "동백나무"를 비롯한 "후박나무" "참실나무" "생달나무" "송악" "자금우" "섬읍나무" 등이 뾰뾰히 들어 찬 숲이 많다. 또한 상록수림의 아래에는 "고란초", "콩짜개명굴", "석위", "큰봉의 꼬리", "쇠고비", "실고사리" 등 풍부한 상록성양치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나도풍란" "석곡"과 같은 상록성인 단자엽식물도 제주도가 아니면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는 1,482종류나 되는 많은 식물이 자라고 있어 식물학상 귀중한 연구자료를 제공하여주고 있으므로 인간에 의한 이용, 활용의 결과로 초래되는 침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천연보호구역인 동시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연의 원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파괴시키지 않음에 목적이 있지, 관광목적을 위해 개발을 한다든지 자연물에 대한 파괴행위가 없도록 일반에게 주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문리대 교수)



Silent Spring

평화롭고 한적한 농촌이 아름다운 자연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들에는 오향이 무르익고, 단풍나무숲은 진홍색으로 물들었으며 밭을 가로 질러 야산의 능선에서는 이따금 여우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오솔길을 따라 들국화와 인동나무의 잔상이 무성했었다. ... (중략) ... 몇년 전엔가 번영을 약속하는 공장이 세워지고 文明이 진주한 후 맑은 溪流는 흐려지기 시작했으며 가축은 이름모를 병에 쓰러지기 시작했다. 파수는 열리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도 이름모를 병에 하나 둘 신음하게 되었다.

봄이 다시 돌아왔으나 어쩐일인지 풀벌레 날지않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들에는 꽃도 피지 않았다.

죽음과 정적의 봄이 마을에 찾아왔다. —R. Carson—

회 원 모 집

본회에서는 회원 가입 신청을 환영합니다.

문의 하실곳 : 서울特別市鍾路區東崇洞31 서울大學校文理科 大學動物學科內 韓國自然保存研究會

<참관기>

국제자연보존연맹

제10회 총회 참관기

李 敏 載

작년 10월 어느날, 한국 자연보존연구회(韓國自然保存研究會)로부터 인도의 뉴-데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자연보존연맹 제10차 총회(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the 10th general assmblly=IUCN)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래 내가 문화재위원회를 통하여 한국의 자연보존 업무에 관여해 왔고 또 한국자연보존연합회도 창립하여 일에 관심을 가졌던 까닭에 나더러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나 나로서는 얼른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 몇가지 있었다.

첫째로 40개 가맹국과 200여개의 가입단체로 이루어진 이 연맹의 이번 회의의 규모로 보아 나 혼자서 참석하여 국가 대표로서의 실효를 걸우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라는 점과 둘째로 우리나라는 1966년에 본 연맹이사회에서 가입이 결정되어 있는 바 금번 총회에서 인준을 얻어야 될 터인데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회원이 되어 있는 북괴의 선경전에 대비하여 충분히 의논할 사람도 없이 혼자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이며 세계로는 중립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인도정부가 최근에 좌경화하는 듯한 상황에서 예상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칠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 하고 몇사람 더 가야겠다고 간곡히 요청했으나 예산관계로 한사람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대신 뉴-데리총영사로 있는 최운상씨에게 그 후원을 받도록 연락하겠으니 영사관원과 협력해서 잘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보니 혼자서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총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야외회의(Post meeting tour)가 3~6일간 계속될 예정이었다.

11월 22일 KAL 기편으로 홍콩에 가서 비행기를 Air France 로 바꿔타고 뉴-데리에 도착하니 11월 23일 오후 9시 40분에 경이었다. 수년전 유럽에 갈때 공항에만 들렀던 일이 있으나 뉴-데리에 내리는 것은 처음의 일 이기에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공항밖으로 나갔다. IUCN 의 직원이 나와 안내해 주었기에 미리 예약한 Jan-path Hotel 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호텔에 들어가니 IUCN 의 New Bulletin 이 이미 와 있어 스케줄을 보니 예정에는 내일 10시에 개최한다는 것이 8시 30분으로 단축되어 있었다. 간디수상의 연설이 예정보다 당기어졌

까닭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출발전의 잠무와 여행의 피로가 겹쳤는데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도 잠을 이룰수가 없어 매우 고생을 하였다. 긴장된 탓인지 morning call 없이 7시에 잠을 깨어 겨우 8시 출발의 회의버스에 탈 수 있었다. 도무지 머리가 어지러워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으나 북괴에서 누가 몇명이냐 나왔는가 하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의에 나온 간디수상을 회의 의장인 Coolidge박사의 소개로 곧 만날 수 있었는데 피부색도 그리 검지않고 미인편이면서 코가 짙숙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침착한 여인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대체로 이 회의에는 43개국에서 참가했고 그밖에 국제기구로서 UNESCO, FAO, UNDP 가 참가해서 인도의 참석자를 제외한 외국참석자 273명과 인도 참석자 약 200명, 도합 500명이 참석하였다.

11월 24일은 총회가 하루종일 열렸고 25일~30일까지는 기술회의가 열리는 5개분과위원회 즉 생존보호위(生存保護委), 교육위(教育委), 생태계위(生態系委), 국립공원위(國立公園委), 법률위(法律委)가 각기 열리고 있었다. 11월 27일에는 동양지역 대표들만이 모여 동양지역 회의와 기구를 IUCN 산하에 따로 갖자는 제의가 있어 대체적으로는 찬성하기로 하고 기구는 후일에 구성하되 인도에 일임하기로 했다. 원래 자연보존이란 세계인구의 폭증으로 인하여 지구상의 원상이 파괴되므로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지구상의 원형과 그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그대로 보존하자는데 그목적과 의의가 있는 것인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파괴된 곳이 많고 이것이 비교적 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에 많이 남아 있기에 아시아지역(亞阿地域)이 대상이 되고있는 터이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이미 그 지구회의와 기구가 성립되었는데 아시아지역에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웅당 이번에 나을법한 제의라고 생각했었고 인도대표들과의 상담에서도 나의 이같은 의도를 전하고 이번엔 이곳에서 예비적으로 모여 보자고 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이다.

북괴의 참석을 예상하고 그들의 상투적인 신경전과 그 대책을 준비하고 갔으나 다행히도 한사람도 오지않아 여러가지 면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다. 북괴에서는 세사람이 참석하기로 명단을 제출해 왔는데 회의시작 3일전에야 불참통고가 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입이 파탄없이 승인된 것은 큰 수확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 물론 그 이면에는 Coolidge 박사의 노력과 다른 간부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에 이르기까지는 총영사 최운상씨의 노력도 대단히 컸던 것이다.

회의내용은 너무나 전문적으로 흐르기에 생략하기로 하였으나 이번에 특기할 사항은 종래의 IUCN 밑에 5개의 분위 이외에 명승위(名勝委 Landscape Commission)가 신설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를 간추려 본다면 작 위

원화에서 토의되고 총회에 제출된 '간의안' 33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대체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립공원의 정의와 그 관리에 관한것.
2. 야생종(Wild life)의 보존.
3. 오염에 대한 파괴방지.
4. 자연보존에 대한 교육 및 교사교육문제.
5. 보존을 위한 살충제의 금지 또는 제도에 관한것.
6. 해양도서(海洋島嶼)의 보존에 관한것.
7. 호소(湖沼)의 보존.
8. 각국 행정부에 보존을 위한 독립단위기구 창설의 권고.
9. 보존을 위한 인구통제의 문제.

이상 대체로 총회와 기술회의가 12월 1일에 끝나고 12월 2일부터는 보존에 대한 현지시찰과 현지에서의 토론이 있었는데 이것은 6개군으로 나누어 3~6일간이나 지속되었던 것이다.

끝으로 내가 인도에서 받은 느낌을 간단히 기술해보면 그 역사문화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들이 허다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대로 생장발전하여 현대문화에 연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중단되어 유물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들이었다. (서울대·문리대 교수)

외국의 자연보호(II)

—보호이념과 현상을주로 하여—

洪 佑 淳

미국의 자연보호

“이제 콘서어베이슨(자연보호)은 새로운 푸른티어로 등 장하게 되었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이와 같이 자연의 보호를 역 설하면서 과거의 영향력있는 다른 여러 위정자들보다 더 한층 깊은 관심을 여기에 기울였다.

또한 그는 바쁜 그의 국내외의 정치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기회있을 때마다 미국의 자연이 파괴되고 있음을 한 탄하였으며 그 보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제, 자연보호는 정치적, 재정적 압력에 좌우되는 그 때 그때의 보호 또는 개발이 아니라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계획성이 있어야 하며 개인적이나 지방적인 근시안적 시 야를 초월하여 반드시 국가적인 큰 전지에서 합리성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한다.”

“풍부한 자연 자원은 전 미국을 위하여 보호되며 또한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강력한 행 동을 필요로 한다.” “.....이 방향을 향하여 언제나 공격 적이며 치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푸른티어의 크나 큰 목표물의 하나이다.”

달변적이거나 이와 같은 케네디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미국의 자연보호는 큰 정치문제로 되고 '있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

元 炳 阡

늑대 Wolf, *Canis lupus chanco Gray*

본아종은 소련령 파미르, 중국 토키스탄, 티안산, 티베트, 몽고, 북부중국등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전역에서 볼 수 있다. 승냥이(*Cuon alpinus alpinus Pallas*)가 한국에 서식한다는 종전의 기록은 오인된 것이며 모두 야생화한 개라고 한다. 따라서 아무르지방에서 중국 동북지방 및 싸할린 등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승냥이를 한국에서 포획한 확실한 자료는 아직 없다. 이빨의 수는 늑대 42, 승냥이 40이다. 늑대(*canis lupus* Linné)는 양반구 북부와 북미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으나 지역완으로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으며 일본은 1900년초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우리들의 인식은 지금도 사납고 해로운 짐승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지금의 실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격감되었고 극소수만이 각지에 매우 드물게 자취를 나타내는 희귀한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새삼 인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포획에 앞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범(호랑이) Korean Tiger, *Felis tigris coreensis Brass*

한국, 중국 동북지방, 중국 북부, 동부 몽고 등지에서 알려져 있다. 한국 이외의 지역특히 중국 동북지방(만주) 산 범을 지금까지 독립된 아종(*F.t. amurensis Dode*)으로 취급하는 학자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동일아종으로 취급해 둔다.

범은 백두산 지역에서부터 전남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2차대전까지 함북 무산에서 5마리(1935), 함남고산에서 2마리(어미 1, 새끼 1, 1924~1926), 전남 영광군 불갑산에서 1마리(1911), 강원도 가리산에서 1마리(숫컷 1918), 경북 경주군에서 1마리(숫컷 1922), 평북 운산군 복진에서 1마리(1930) 등 포획기록이 있으나 전후 한국 중부 이남에서 포획된 확실한 자료는 아직 없다. 남한에서는 아마도 절종된 것으로 보이며 백두산 고준지대에 한하여 극소수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몸무게는 142kg~176.5kg, 몸길이 151.5cm~180cm(♂), 키높이 102cm, 꼬리길이 97cm등의 예가 있다. 산림속과 산림바위굴에서 살며, 야산에는 없다. 범의 뼈는 호랑이를 만들어 술중치료에 썼으며 동의보감에는 뼈, 고기, 가름, 수염, 코, 이빨, 가죽, 열, 눈알 등을 약에 쓴다고 하였다. (경희대·문리대 교수)

다. 그것은 콘서어배어손이란 이념이 야미: 우리가 흔히 남용할 수 있는 보호라는 개념을 넘어서 매우 광의의 해석을 하는데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농, 립, 어, 축산업(農, 林, 漁, 畜産業) 따위를 크게 자연의 산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것을 자연 자원으로 취급할 때 이것과 보호와 관리가 곧 생산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위와 산업적인 자원 이외에도 인간의 생활환경으로서의 수질오염, 공기오염의 문제, 나아가서는 인간의 정신적 양식이 되는 공원녹지(公園綠地)의 보호, 관리등 그 범위는 매우 넓은 것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동식물 또는 원시림의 울창한 신비경로의 보호는 협의의 자연보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참다운 자연의 보호는 생태학에서 말하는 자연 그대로의 인류생활권을 여하히 반 영구적으로 지속시키느냐 하는 것이며 그것의 관리 방법에 따라서 자원의 이용을 가늠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의 학문적 근거를 찾아본다면 미국의 경우는 다른 서구나라 여러 나라 또는 동양의 여러 나라와 달리 그 나라 나름으로 그 나라의 자연풍토에 알맞은 과학적 연구가 성장되어 있으며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큰 힘이 야미 배양되어 있는 탓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의 보호란 책상위에서 처리되는 정책만이 아니라 그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과학적 지식이 야미 자연과 자원의 합리적인 보호, 관리, 갱신에 밀거름이 될 만한 기초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연방정부의 내부부에 국립공원국이 있으며 각 주정부에도 주립공원및 자연관리국 또는 과가 있어 행정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다. 학술, 재정적 면에서는 강력한 자연보호 재단이 있어서 국내 자연의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국제간에 있어서와 협조 내지 지도도 아울러 행하고 있는 형편이며, 우리 나라에도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의 총재인 Coolidge박사를 위시하여 수명의 전문가가 내한한 바 있으며, 1968년에는 Ruhle 박사에 의한 "한국의 국립공원과 그 보호에 관한 보고서"가 출판된 바 있다.

유럽의 자연보호

유럽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 있는 미국의 경우와는 규모나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유럽의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와 흡사한 점이 많은데, 예를 들면 국토는 협소한데 인구밀도는 큰 것이 보통이며 또한 이들 나라는 제각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자연의 파괴는 일찍부터 있었으며 자연에 대한 보호, 관리의 시책도 시기적으로 매우 앞서 있다고 하겠다.

홀랜드 같은 나라는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나라로서

큰 국립공원은 없으나 조국의 자연보호를 제 1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이 또한 가장 보호정신에 투철한 나라이다. 독일과 벨기에 국경의 메마른 구릉지대에서 사구나 염소습원(鹽沼濕原)이 많은 해안선까지 이미 오랜 세월이 걸쳐 목야지나 경작지 또는 공업용지로서 이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참다운 자연식생이나 자연의 경관은 이미 오래 전에 잃어버린 곳아 되어지고 있었다. 이 나라는 이러한 사정에 놓여 있었기에 보호의 필요성도 가장 크게 느껴졌으며, 현재에는 가장 잘 시행되고 있는 나라로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자연보호 중앙관리국이 있으며 전국 11개 지방에 각기 자연보호 지방관리국이 있어 자연의 경관 및 동식물 자원을 보호, 관리하는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 나라에는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실자연보호연구소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권위를 자랑하는 30여명의 세계적 학자가 동식물의 생태에 관한 훌륭한 업적, 특히 모든 생물공통체보호에 관한 일 및 산업적 기반이 되는 많은 보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 방면 학문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영국은 섬나라로서의 성격을 띠우면서 역시 국토가 비좁고 인구밀도가 큰 유럽 여러 나라의 성격을 띠우고 있는 것으로서 이미 이용되고 있던 사유지나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건축물 또는 저택같은 것을 가증 내지 매입하여 이것을 보전하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영국은 스코트랜드를 제외한 여러 곳에 10여개의 국립공원이 제정되고 있다. 이 국립공원은 자연미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공원과 야위 리크리에이션을 위한 두가지 종류의 공원이 있으며 규모도 다음에 설명할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국립공원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소규모 공원이 특색이다.

영국에 있어서의 자연보호는 국제적인 것도 잘 되어 있지만 특기할 만한 것은 사설단체인 National Trust의 효과적인 보호 활동이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원래 National Trust는 19세기 말엽에 선견지명이 있는 3인의 민간 독지가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다. 북부 잉글랜드의 호수 지방에 살고 있던 카논·론즈레이 목사, 남부 지방의 자연경관을 찬미하던 변호사 로버트·한타경 및 부인 사회봉사자인 윌타비아·힐 여사는 자기 나라의 자연이나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옛 건축물이 언젠가는 이해성 부족한 어떤 부호에 의하여 희생되어 변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1895년 "사적과 자연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단체, 즉 오늘날 그 유명한 National Trust를 만든 것이다. 그 후 이 단체는 15만명 이상의 많은 자연애호유지를 규합하게 되었으며, 국민운동으로서 자연미를 지키자는데 큰 핵심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시책으로서는 자연보호협회가 1949년에 설립되어있으며 정부의 연간 교부금으로 자연자원 특히 동식물상의 보호및

관리에 대한 연구 및 제풍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밖의 유럽 대륙쪽 여러 나라도 각기 그 나라 나름으로서의 자연경관 및 자원의 보호가 강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의 사상은 수백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국민의 마음 속에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신이 오랜 세월을 두고 흘러 내려오는 동안에 민족적, 나아가서는 인류전체의 공감을 얻어 오늘날에는 국가적 시책은 물론이거니와 국제간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과학적인 보호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아프리카의 자연보호

이 대륙에서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총독통치 또는 신생 국가의 새 법령하의 국립공원령 또는 자연보호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여 주로 그곳의 특이한 동식물 보호를 중요시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기 자주독립을 하면서 자기나라 나름으로서의 자연자원의 보호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일찍이 자연보호의 개념이 이룩된 나라는 콩고 공화국이다. 콩고는 고릴라 보호의 필요성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아바트 국립공원으로 되었고 법령은 1929년부터 발효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26년 남아프리카 연방은 총독 고시에 의하여 당시의 왕실영지(Crown Land)를 국립공원법에 적용시켰으며 그 후 사자 서식지로서 유명한 Kruger 국립공원을 위시하여 희망봉 최남단에 있으며 코끼리 서식지로서 이름날 Addo elephant 국립공원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과학출판물 Koeda 가 간행되고 있다.

탄가니카 및 케니아도 2차대전 후에 동물의 보호지역을 제정하여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가지 특기할 것은 탄가니카의 경우 이 나라에는 이들 자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정부기구로서 천연자원장관이란 직제가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을 거국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서울대·문리대 교수)

Contents

Let's Love Wildlife: Dr. Choi, Ki Chul (Seoul National Univ.)

Warning the unconsciously destroying the nature's biological balances by random fowling, for example, the author appeals to the public to love and to care wildlives. Dr. Choi also asserts that the keeping our nature depends primarily on the people's mind, not on the legislation.

Halla Mountain: Dr. Lee, Dug Bong (Chung-Ang Univ.)

This article contains a brief geography, and traditions of Halla Mountain, one of the most famous sightseeing places in Korea. It also contains a concise description about the flora of the mountain. The flora, the author writes, offers many advantages for the study of plant ecology and taxonomy.

An Account of Kyeryong Mountain: Dr. Kim, Hun Kyoo (Ehwa Women's Univ.)

Guiding the hiking courses of the several places of scenic beauty around Keryong Mountain, the author invites the readers to a charming tour to this attractive and celebrated mountain.

"Ohdoldogie", a folk song of Cheju Island.

The Peculiarity of Plants from Cheju Island: Dr. Chung, Yung Ho (Seoul National Univ.)

A brief description of the flora of Cheju Island is presented in this article. Among a total of 1,482 species of plants found, more than 30 species are known to be unique ones in this Island.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plant distribution of the Island are also presented along with the plant geography. Numerous plants which are being protected by the government as natural monuments are listed.

The 10th General Assembly of the IUNC: Dr. Lee, Min Jae (Seoul National Univ.)

The author attended at the 10th General Assembly of IUNC, New Dehli, India, October, 1969. This article is a brief sketch of the meeting. The affiliation of Korea with the IUNC was finally approved on this occasion. A new organization, Landscape Commission, was established under the IUNC.

The Wildlife in Danger Wolf and Korean tiger:

Wolf (Canis lupus chanco) and Korean tiger (Felis tigris coreensis) are now almost disappearing from Korea. A special care should be taken to preserve these rare animals. A short comment on the ecology of them appears in this article.

Nature-Protection in Foreign Countries: On the Vision of Protection and Status: Dr. Hong, Soon Woo (Seoul National Univ.)

Beginning with the citation of President Kennedy's adresses which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preserving nature, Dr. Hong introduces the present status of nature-conservation in the U.S. and in other several nations in Europe and Africa. His special attention is given, as was in his previous article, to the scientific efforts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n these nations.

題字는 成均館大學校教授 閔泰植博士의 揮毫입니다.

발행인 姜 永 善
 편집인 金 昌 煥
 편집위원 金昌煥 金薰洙 鄭英昊 尹一炳(幹事)
 연락처 서울特別市 鍾路區 東崇洞 31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動物學科 內
 社團 法人 韓國自然保存研究會